

[국제]

현장과 시각

초가삼간 태울 면세유 정책



이종태 경제부 부장

지난 19일 전남 광주·전남연평 소속 1천여명의 농민들이 '식량주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한 농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지난 1일 세계계관안을 발표하면서

전남도에 시설하우스 면적 4천600여ha 가운데 난방용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면적만 해도 1천900여ha로 40%를 넘는다.

시설농가들의 반응은 '어처구니 없다'는 투다. 반대(일부의 부정유통) 잡으려고 초가삼간(대다수 농민)을 태우는, 한마디로 웃기는 '타사행정'이라는 비난 일색이다.

나주농민 김모씨는 "마냥 기업프랜들리만 떠벌리는 정부가 농업현실을 알거나 하겠느냐"면서 "면세유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상황에서 그나마 공급마저 중단한다면 시설재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들도 "경유를 대체 사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발열량이 떨어지는 등유를 사용하다 농작물이 냉해를 입을 경우 보상주체도 없다"면서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환급기준 하향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계관안은 이날 말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면세유 공급이 끊길 경우 농산물 생산단가가 최소 30%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농민들을 또 분노케 한다.

이슈가 있을 때 거리투쟁을 했다고 해서 잡지에 '싸움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이들 농민들이 기를 잃고 격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한나라당 박세준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면세유 당 최고위원회가 일리치한 한반도 농업용을 걱정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식량안보 확보차원에서라도 면세유 가격인하와 공급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속시원한 반향을 기대해본다. /jlee@kwangju.co.kr

7천억달러 구제금융 법안 합의

美의회-정부, 대출연체 주택 압류 없도록 보호 장치 강화

미국 의회와 조지 부시 행정부는 22일 정부가 마련한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 내용에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데 합의했다.

하원 금융위원회의 바니 프랭크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의 협상팀과 의회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구제금융 조처에 따라 정부가 인수하는 모기지자의 경우 주택대출 상환연체로 주택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

부가 구제금융을 받는 업체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도록 하고 경영진의 보수에도 상한선을 두는 한편 보너스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마련, 정부측에 전달했다.

수정안은 정부에 대해 모기지 채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부채와 자동차 구입용 대출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연체 부실자에 대해서도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부실자산 인수 대상도 미국내 분사를 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해외에 분사를 둔 회사도 포함, 시장의 안정을 꾀하도록 했다.

또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시한을 2년

간으로 해 달라는 정부측 요구와 달리 민주당은 시한을 내내말로 한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금융구제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과 상하원이 각 1명씩 임명하는 감사인으로 비상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파산상태에 놓여 주택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집을 압류당해야 하는 주택보유자들에게 대해서는 법안이 모기지 내용을 수정, 월 상환액을 낮춰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보유자들에게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의회 관계자들은 하원에서는 24일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부시 대통령의 7천억달러 구제금융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G7 "국제 금융시스템 보호 긴밀 협력"

금융위기 공동 대처 선언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2일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동대처를 선언했다.

이들 7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전화회의를 통해 채택한 성명에서 "우리는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와 세계 시장에 다각하고 있는 도전에 대응하면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 기구의 책임자들간에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다짐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국제 금융시스템을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 개별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G7 전체 차원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성명은 G7 재무장관·중

양은행 총재들은 미국이 최대 7천억달러를 투입해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측이 여타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유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대신 유동성 지원과 규제 강화에 대해 강조점을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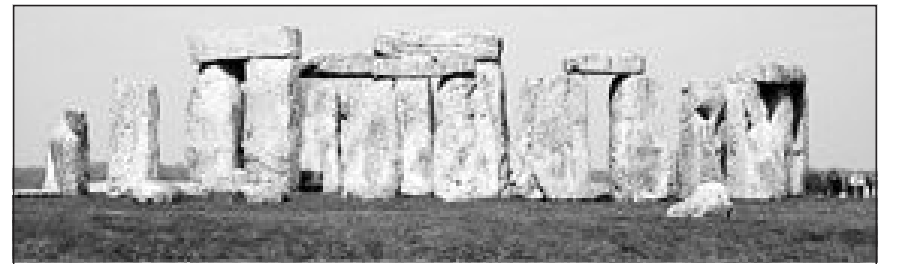
성명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자금시장에서 유동성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해왔으며 일부 국가의 금융감독 당국은 공개도 금지 조치와 같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한편 독일의 패이커 슈타인브릭 재무장관은 이날 G7 장관들과 전화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7국가들이 미국의 금융구제 방안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금융위기로 오바마 지지율 50%대로 반등

'페일링 바람'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50%대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지난 19~21일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후보는 51%의 지지율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를 5% 포인트차로 가볍게 따돌렸다. 지난 5~7일 CNN 조사에서 두 후보가 48%로 동률을 이루는 등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새라 페일링 알래스카 주지사의 인기여가 커져 지지도에서 줄곧 밀려났던 점에 비춰볼 때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스톤헨지'는 병자들 순례지

세계 불가사의의 비밀 풀려...기원전 2,300년께 건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선사시대 유적인 스톤헨지는 거석(사신)의 치유력을 믿은 유럽 전역의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순례지이며 정확한 건설 연대는 기원전 2천300년이라는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BBC 뉴스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번머스대학 연구진은 탄소방사선 기법을 통한 정밀분석으로 스톤헨지 건설 시기를 기원전 2천300년 경으로 밝혀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연대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스톤헨지의 일층 일부를 이루는 청석기 돌인 시기가 기존 가설보다 약 300년 뒤임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으로 이루어진 스톤헨지 주변지역 발굴작업에서 발견된 청석에 대해 연구진은 "고대인들이 신비한 치유력을 가진 것으로 믿었으며 이에 따라 스톤헨지는 병들고 다친 사람들의 순례장소로 변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부근에서 "비정상적인 정도로 많은" 부상자들의 매장 흔적이 발굴됐고 치아 분석 결과 절반 가량이 외지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면서 수술 흔적을 보이는 두개의 두개골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 곳이 "신석기 시대의 루르드(치유의 거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의 가톨릭 성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정일 건강 호전 추측" 김성호 국정원장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 "조금 호전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려려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김 위원장이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보도된데 대해

정보보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질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북한이 최근 영변 핵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붙인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했거나 제거할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김 원장은 "일부 봉인이 제거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이 밝혔다.

정보위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국정원이 일부 봉인이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시-후진타오, 北비핵화 설득키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22일 북한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화회의에서 최근 북한사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이날 후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때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존드로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원상

태로 복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두 지도자는 북한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의 길을 계속 걸어갈지라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불능화했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2일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했던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핵실험을 재개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육금지법 적용을 폐지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82-222-8446, H.010-3666-8446. Lists various properties like '근린시설', '주택',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농가권면시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중법률(주). Includes contact info: T.062-229-9900, 010-3619-1214. Lists various properties like '아파트', '주택',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근린주택-건물-상가'.